

현대 중국어 사건의 고정화와 상(aspect)*

崔圭鉢·鄭池秀**

<목 차>

1. 들어가는 글
2. '사건'의 개념
3. 사건과 고정화
4. 상 합성 요소와 고정화
 - 4.1 술어의 상적 부류와 사건의 고정화
 - 4.2 논항성분과 사건의 고정화
 - 4.3 보어 및 부가어와 사건의 고정화
 - 4.4 상적 관점과 사건의 고정화
5. 결론

1. 들어가는 글

石毓智(1992/2001), 沈家煊(1995)는 경계/비경계 혹은 이산(離散)과 연속(連續)이라는 인지적 개념을 사용하여 명사의 두 부류, 동사의 두 부류를 언급하였다. 이 중 동사 차원에서의 경계/비경계의 대립은 부정소의 선택에 반영되어 '不'는 비경계적이고 연속적인 요소를 부정하며, '沒'는 경계적이고 이산적인 요소를 부정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한편 상(aspect)을 중심으로 한 부정소 선택 제약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상적 자질을 사용하여 '不'와 '沒'의 선택

* 본 논문은 2009년도 고려대학교BK21중일언어문화교육연구단의 연구비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 고려대학교 중문과 교수·고려대학교 대학원 중일어문학과 박사과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Ernst 1995, Hsieh 2001, Lin, Jo-Wang 2003, Li, Mei 2007 등).

그렇다면 인지적인 경계성의 관점에서 두 부정소의 기능분담을 설명한 연구와 상적 자질을 기반으로 한 분석은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 본 논문은 바로 이러한 의문에서 시작한다. 이 문제는 인지문법의 ‘고정화(grounding)’로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Langacker(1999/2001)는 영어의 고정화 서술로 양상조동사와 시제 형태소를 언급하였는데, 중국어의 TAM 범주 가운데 가장 동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가장 현저한 범주인 상이 고정화 서술로 기능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중국어의 상 표지가 고정화 서술의 한 가지라는 점에 대해서는 木村英樹(2008)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명사(구)가 구체적 실체를 가리키기 위해서 고정화 서술이 필요한 것처럼 문장이 나타내는 명제가 구체적 사건을 지시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고정화 서술’이 필요한데, 중국어에서는 상과 관련된 요소가 특히 사건의 고정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래에서는 먼저 ‘사건’에 대한 정의를 다시 살펴보고, 고정화에 기여하는 각종 상적 요소들과 사건문으로의 고정화 과정을 고찰해보겠다.

2. ‘사건’의 개념

먼저 상 문제에서 어떻게 ‘사건’의 개념이 사용되는지 보자. 중국어의 상 연구에서는 어휘상 분류의 기준에 있어서나 부정소 선택 제약 문제에서 ‘사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Lin, Jo-Wang(2003)은 중국어에서 ‘不’와 ‘沒’의 분포가 그들의 상적 선택에 따른 것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논하였으며, 그는 ‘沒’가 상적으로 사건(event)을 그 보충어(complement)로서 선택하며, ‘不’는 상적으로 그 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동력(energy)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정태

적 상황(stative situation)을 그 보충어(complement)로 선택한다고 보았다. 이에 Lin은 '사건'과 '정태적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상태와 비상태(사건)의 구분이 어떻게 해서 '不'의 사용을 인허하는 조건을 특징 짓는 더 나은 개념이 되는지를 보기 전에 먼저 상태와 비상태(사건 event)의 개념을 살펴보겠다. ...사건성(eventuality)은 상태(state)와 비상태(nonstate, 혹은 동태적 사건 dynamic event)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이 두 범주로부터 더욱 세밀한 구분이 이루어질 수도 있음은 잘 알려진 바이다. 여기서는 상태와 비상태의 구분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겠다. 상태는 시간속에서 발전되거나 변화하지 않는다. 상태는 시간 속에서 지속되며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의식적 노력이 요구되지 않는다(Comrie 1976, Smith 1991, 등). 이와 반대로 비상태 혹은 동태적 상황은 시간에 걸친 변화와 관련되어 있으며 에너지의 투입을 필요로 한다. 동태적 상황은 다시 과정(process)과 사건(event, 완수 혹은 성취)으로 나뉜다.(Bach 1986, Vendler 1967, 등)

Lin, Jo-Wang(2003:428)

Lin의 설명에서 보듯 일반적으로 사건과 상태(혹은 비사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변화', '에너지의 투입' 등으로 설명되는 '동태성'의 유무에 있다. 그러나 위의 분류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그가 말하는 '비상태(사건, 혹은 동태적 사건)'와 '동태적 상황'은 동일한 것인지, 동태적 상황은 다시 '과정'과 '사건'으로 나뉘었는데, '沒'가 그 보충어로 사건을 선택한다고 하면 동태적 상황의 하위 범주에 속하는 사건(완수 혹은 성취)만이 '沒'의 보충어가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동태적 사건' 모두가 그러한지 매우 모호하다. 이러한 혼란은 '사건'을 문장 층위의 개념으로 이해하는가 아니면 어휘 차원의 개념으로 이해하는가 하는 문제에서 온 것이다.

그렇다면 상 연구에서는 '사건'의 개념이 어떠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을까? 사건은 때로는 동사의 부류를 구분하는데 사용되기도 하고, 때로는 문장 층위의 상적 특성을 구분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Smith(1997:35)는 "사건(event)이란 이산적(discrete)이고 경계 지어진(bounded) 개체(entity)"라고 하였으며, 이에 상대되는 개념을 '상태(state)'

로 보았다. 하지만 문제는 '상태'라는 동일한 용어가 상황유형 분류에도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어휘적 상태와 해석 차원의 문장 층위 상태가 전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Smith만의 오류가 아니다. '사건'과 '상태'가 내재적으로 구분 가능한 것일까? 그 구분이 얼마나 복잡한 양상을 띠는 지는 Moens(1987)의 분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Moens(1987)는 상황을 크게 '사건'과 '상태'로 나누었으며, 사건은 원자사건(atomic event)과 확장사건(extended event)으로 나뉘며, 각각은 또 결과가 있는 것(+consequent)과 없는 것(-consequent)의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해서 사건은 '정점(culmination)', '정점과정(culminated process)', '점(point)', '과정(process)'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또한 상태는 습관적 상태(habitual state), 결과 상태(consequent state), 진행 상태(progressive state), 어휘적 상태(lexical state)의 네 가지로 나뉜다. 이렇게 나누어진 각 상황유형의 상호관계는 다음과 같다.

사건 가운데 결과가 있는 것은 정점(culmination)을 가진다. 이 중 예비단계가 있는 것은 '정점과정'이 되고, 예비단계가 없는 것은 '정점'이 된다. 또한 '정점' 이후의 결과를 부각시키면 '결과상태'가 된다. 또한 과정 중에서 정점을 가지는 것은 '정점과정'이 되고, 정점이 없는 것은 '과정'이 된다. '점'이 반복되면 '과정'이 된다. '과정'이 진행 중에 있으면 '진행상태'가 된다. 이처럼 '어휘적 상태' 이외의 세 가지 상태유형(습관적 상태, 결과적 상태, 진행 상태)은 모두 '사건'을 이루는 유형들과 상호 관련성을 띤다. 이를 통해 '사건'의 개념은 어휘 층위에서는 완전히 구분해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부정소 '不', '沒'의 기능 분담 문제와 관련하여 '사건'의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최규발·정지수(2006:89)에서는 언어에서의 '사건'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사건(event)'이란 어떤 개체가 어떤 시간에 어떤 속성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순차적으로 만족시켜야 한다.

I. 어떤 개체가 어떤 공간에 있다.

- II. 어떤 개체가 어떤 공간에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다.
 III. 어떤 개체가 어떤 공간, 어떤 시간에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사건은 어떤 물리적, 정신적 공간을 차지하는 '개체(entity)'와 '시간(time)', '속성(property)'으로 이루어지는데, 특히 '시간' 요소가 사건을 구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건에는 구체사건과 추상사건의 구분이 있으며, 시간적으로 특정지어지면, 즉 경계를 가지면 그것은 구체사건으로서 '개별자(particular)'¹⁾로 간주되고, 시간적 경계가 없으면 다른 시간이나 공간에서 실례화 될 가능성을 가진 추상사건으로 머문다는 것이다. 물론 엄밀히 말해 사건을 나타내는 언어 표현에서 시간 지시가 빠진다고 하여도 개별자로서의 구체사건을 지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사건을 구체화하는 다른 요소의 도움이 필요하다. 반면 시간적 경계는 사건을 개별자로 실례화하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다.

아래에서는 구체사건과 추상사건을 구분해주는 시간적, 공간적 경계를 고정화의 관점에서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3. 사건과 고정화(grounding)

앞서 본 것처럼 '사건'은 공간 속의 개체와 그 개체가 지니는 속성, 그리고 시간의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 문장 속에서 속성은 술어로 표시되며, 개체는 논항성분으로 표시된다. 사건의 예화는 공간개념을 통해 표현될 수도 있고, 시간개념을 통해 표현될 수도 있다. 공간적으로는 명사가 매개체가 되며, 시간적으로는 동사 혹은 동사 관련 범주가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시간의 경우 가장

1) 최규발·정지수(2006:93)에 따르면 “개별자란 개별자들로 이루어진 추상적 집합의 한 실례로서, 사건이 개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경계를 가짐으로써 다른 개별자와 구별되어야 한다.”

직접적인 표시 방식은 시간부사어가 되겠지만, 시간과 관련된 문법범주를 통해서도 사건을 구체화하는 시간적 경계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TAM은 사건을 언어적으로 구체화하는 수단, 즉 ‘고정화 서술(grounding predicate)’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고정화(grounding)는 “화행과 화행 참여자, 화행의 직접 환경을 지시하는 방법”이다(Langacker 1999/2001:57). Dirven & Verspoor(1998/1999: 123)는 “사건을 화자의 세상에 대한 경험과 관련짓는 것을 고정화”라고 하며,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건의 참여자들과 그 사건 전체는 맞을 내리거나 고정화할 필요가 있는데”, “보통은 화자를 공간상의 참조점으로 간주하고 발화 순간을 시간적 참조점으로 간주한다”고 하였다. 즉 사건을 시간적 혹은 공간적으로 화자 혹은 발화와 관련짓는 것이 고정화이다. 따라서 Langacker(1999/2001:331)는 고정화 요소를 ‘직시적 참조점’이라고도 하였다. Langacker는 영어에서 고정화 서술(grounding predication)로 명사류의 경우 관사, 지시사, 양화사를 들었으며, 동사 정형절의 경우 시제와 서법조동사를 들었다. 그에 따르면 “고정화 서술은 오직 고정화된 개체-명사에 의해 윤곽으로 부각되는 물체 또는 정형절에 의해 지시되는 과정-만을 윤곽으로 한다.”(Langacker 1999/2001:332-333) 즉 고정화는 명사나 동사구가 가리키는 개체나 상황을 화행 속에서 화자나 청자가 알 수 있는 실례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Dirven & Verspoor(1998/1999)의 경우에는 고정화 요소의 범위를 좀 더 넓게 보았는데, TAM, 즉 시제, 상, 양태 모두를 고정화 요소(grounding element)라고 하였다. 이들은 M범주에 서법(mood)과 좁은 의미의 양태(modality)를 포함시켜서 시제, 상, 서법, 양태를 고정화 요소로 보았다. 이들에 따르면 시제는 “발화행위 시간(speech act time)이라 불리는 발화순간과 관련하여 하나의 사건을 시간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서법은 “발화행위를 수행하는 화자의 의사소통 의도를 표현”하며, 양태는 “사건의 위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표현할 수 있게 하는 문법적 수단”이다. 마지막으로 상은 “화자가 하나의 사건을 발화행위 시간이나 다른 특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어떻게 관련짓는가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하나의 사건을 다른 사건 이전 또는 발화행위 시간 전에 놓이게 하는 것은 완전상(perfective aspect)의 역할이며, 사건들의 내적 모습, 즉 진행 중인 경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진행상(progressive aspect)의 역할이라고 하였다(Dirven & Verspoor 1998/1999:122-128).

중국어의 경우 동사구 혹은 문장 전체가 나타내는 상황이 화행 참여자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가를 알려주는 정형성이 상(aspect)에 의해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상(aspect)은 중국어에서 ‘사건’에 대한 고정화 서술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木村英樹(2008) 역시 중국어의 상 표지를 고정화 서술로 보고 부정소 ‘沒’와 고정화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다. 그는 ‘了’, ‘著’, ‘過’가 사건이나 사물을 실존화(實存化)시키는 표지로, ‘了’는 시간성 실존화 표지, ‘著’와 ‘過’는 공간성 실존화 표지라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실존화란 어떤 개체나 사건이 실제적으로 화자의 관점이 위치하는 현실의 시공간 영역에 존재함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부정소 ‘沒’는 <비존재>를 나타내는 ‘沒’로부터 파생되어 나왔으며, 실존화 표지가 사용된 문장들이 ‘沒’로 부정된다는 점을 통해서 실존화 표지에 대한 그의 주장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 (1) “小王把DVD看完了沒有?” “沒有”
“小王은 DVD를 다 보았습니까?” “아니오.”
- (2) 我沒去過挪威。
나는 노르웨이에 가 본 적이 없다.
- (3) 牆上沒掛着地圖。
벽에는 지도가 걸려 있지 않다.

(木村英樹 2008:277)

물론 고정화 요소에는 상 표지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으며, 상 표지는 사건을 나타내는 문장의 필수 요소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상 표지가 사용된 문장은 고정화 된 사건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고정화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사건이나 사물의 실존화가 곧 화자가 위치한 시공을 참조점으로 삼아 사건이나 사물을 현실 영역 내에 위치시키는 고정화라는 것이다. '실존'은 '실현(actualize)', '서실(realise)'과 관련되며, 이는 관점상 표지와 자연 관련성을 띤다. 이렇게 시공상에 고정화 된 명제는 사건문을 구성하며, 이 경우 개체의 존재를 부정하는 '沒'를 부정소로 선택할 수 있다.

상은 관점상과 상황상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Dirven Verspoor (1998)가 말한 고정화요소로서의 상은 관점상에만 해당된다. 그렇다면 상황상은 고정화와 관련이 없는 것일까? 한 문장이 나타내는 상황유형은 문장의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동사의 의미자질, 내부논항, 부가어 등이 상황상 합성(situation aspect composition)과정에 참여한다(Xiao & McEnergy 2004a, b 등 참조). 상황상 합성에 참여하는 이러한 요소들은 사건의 고정화 요소로 작용하는데, 아래에서는 상황상 합성에 기여하는 제반 요소를 고정화 관점에서 살펴보겠다.

4. 상 합성 요소와 고정화

4.1 술어의 상적 부류와 사건의 고정화

동사 유형 가운데 개체의 영속적인 상태와 관련 있는 개체층위 상태동사(individual-level state verb)인 '是'를 예로 보자. '是'가 가리키는 상황은 그 자체로는 어떠한 시간적 변화와도 관련이 없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상 표지를 부가할 수 없다.

- (4) *一位潘姓大娘說，新娘子以前是男人，但現在已動了手術，是了女人，我就當她是女的。

앞서 말한 것처럼 상 표지는 고정화 수단으로, 木村英樹(2008:277)는 중국어에서 상 표지 ‘了’, ‘著’, ‘過’는 사건이나 사물을 실존화(實存化)하는 표지라고 하였다. 상 표지를 부가할 수 없는 개체층위동사는 한 개체의 영구적 속성을 나타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고정화 요소를 취하여 사건이 될 수가 없다.

변화를 나타내려면 술어를 바꾸어야만 한다.

- (5) 一位潘姓大娘說, 新娘子以前是男人, 但現在已動了手術, 變成女人, 我就當她是女的。

潘氏라는 한 아주머니가 말하기를 신부가 이전에는 남자였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이미 수술을 해서 여자가 되었고, 나는 그녀를 여자로 여겼다.

(CCL 코퍼스²⁾)

이러한 개체층위술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경계성을 가지는 ‘사건’을 가리킬 수 없어서 ‘沒’로 부정되지 못한다.

- (6) a. 新娘子以前不是女人。
신부가 이전에는 여자가 아니었다.
b. *新娘子以前沒是女人。

이처럼 술어동사의 특성도 그 술어가 가리키는 상황이 사건을 지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여한다.

상(aspect)은 상황의 내적 구성을 바라보는 관점을 말하는데(Comrie 1976), 동사가 가진 내재적 시간 특징에 따라 상적 관점의 부여 방식 및 상황에 대한 관찰 결과로 도출되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동사가 가지는 시간적 특징에는 지속성(durativity), 동태성(dynamicity), 경계성(boundedness), 한계성(telicity), 결과성(resultativeness)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사건에 대한 본 논문의 정의에 따라 사건의 고정화에 기여하는 자질은 무엇이며, 그 자질의

2) 北京大學漢語語言學研究中心에서 만든 코퍼스이다. 본고에서 사용한 것은 그 중 現代漢語語料庫이며, 이하 CCL로 칭하겠다. 주소는 http://ccl.pku.edu.cn:8080/ccl_corpus/index.jsp?dir=xiandai이다.

유무에 따라 술어동사 유형별로 사건문을 구성하는 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자.

상 연구에서는 술어동사가 가지는 시간적 특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동사를 분류한다.

<표 1> Xiao & McEnery(2004a, b)의 술어동사 상적분류

동사유형 \ 상적자질	dynamic	durative	bounded	telic	result
개체층위상태(ILS)	-	+	-	-	-
단계층위상태(SLS)	±	+	-	-	-
활동(Activity)	+	+	-	-	-
순간(Semelfactive)	+	-	±	-	-
완수(Accomplishment)	+	+	+	+	-
성취(Achievement)	+	-	+	+	+

상적 자질의 설정이나 동사유형의 분류는 학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본고에서는 Xiao & McEnery(2004a,b)의 분류에 따라 각 동사유형별로 사건 구체화에 필요한 내재적 경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동사유형에는 두 가지의 상태동사가 존재한다. 하나는 개체층위 상태동사(individual-level state verb)이며, 다른 하나는 단계층위 상태동사(stage-level state verb)이다.

개체층위 상태동사와 단계층위 상태동사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다. 개체 공유의 속성에 해당하는 상태, 불변의 상태일수록 개체층위에 가깝고, 가변적 상태, 일시적 상태일수록 단계층위에 가깝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dynamic]이며 중국어에서 단계층위 상태동사가 [+dynamic]인 상태변화를 나타내려면 외부적 수단이 필요하다. '상태변화'는 기시(inchoative)로 이해되기도 하며, 혹은 성취(achievement)로 이해되기도 한다(Smith 1997, Lin, Jo-Wang 2003, 이복희 2006:169). 이러한 변화 자체는 일종의 사건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沒'로 부정할 수 있다.

또한 상태유형의 일부는 활동유형과 상태유형의 특징을 동시에 지녀서 어떤 학자는 상태유형에, 어떤 학자는 활동유형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특히 인지동사와 심리동사가 그러하다. 상태유형과 활동유형 사이에서 이러한 분류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이 두 부류가 공통적으로 [+durative][-bounded], [-telic], [-result] 특징을 가지기 때문이며, 오직 [+dynamic] 자질에 의거하여 구분되는데, 이 자질 기준이 모호함을 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진행상은 [+dynamic], [+durative]인 상황에 부가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 (7) a. 全家人正在吃飯。
 온 식구들이 밥을 먹고 있다.
 b. 越來越多的日本人在喜歡使用這種天然原料制成品。
 갈수록 많은 일본인들이 이러한 천연 원료 제품을 사용하기를 좋아하고 있다.
 c. *我在覺得我已經沒有了離婚的激情。
 d. *你在漂亮。

(CCL 코퍼스)

이러한 진행상 부가 기준에 따른다면 활동동사 '吃'는 당연히 진행상과 어울릴 수 있으며, 상태동사인 '漂亮'은 [-dynamic] 자질로 인해 진행상을 부가할 수 없다. 하지만 (7b-c)와 같은 심리동사나 인지동사는 이들의 의미만으로는 [+dynamic] 여부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모호하며, 실제 언어 자료에서 진행상 '在'와의 공기 여부를 가지고서도 어느 한 부류에 귀속시키기가 어렵다.

기본적으로 상태유형은 시공상에 내재적 끝점이 없어서 외부적 표지를 가져야만 사건을 나타낼 수 있다. (7)에서 본 것처럼 '漂亮'은 개체의 속성을 나타내므로 안정적 상태에 속한다. 아래 예문을 보자.

- (8) a. 她可真漂亮。
 그녀는 정말 예쁘다.

- b. 這樣, 外觀漂亮多了.
이렇게 해서 외관이 훨씬 예뻐졌다.

(CCL 코퍼스)

(8a)는 ‘她’의 속성에 대한 서술로, 시간에 따른 변화와 관련이 없는 균질적 상태이다. 하지만 (8b)와 같이 ‘了’를 부가하여 변화로 인해 그러한 상태를 갖게 됨을 나타낼 수 있으며, 그 변화의 양도 ‘多’로 표시될 수 있다.

활동유형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공간의 내재적 끝점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외부적 표지가 없는 한 그 원형은 비사건으로 이해된다.

- (9) a. 他吃飯.
b. 現在他吃飯, 睡覺想的都是中文.
지금 그는 밥 먹는 것, 잠자는 것, 생각하는 것 모두 중국어이다.
c. 他吃飯和工人一起排隊買飯票.
그는 밥 먹을 때 노동자들과 함께 줄을 서서 식권을 산다.

(CCL 코퍼스)

(9a)의 ‘吃飯’이 가리키는 사건은 구체적 장소와 시간을 갖지 않아서 사건으로 구체화될 수 없으며, 어떠한 고정화 요소도 갖지 않기 때문에 비경계적이다. (9b, c)에서도 역시 ‘吃飯’은 밥을 먹는 일반적 상황을 가리키지 어떤 특정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는 사건을 가리키지 않는다. 이러한 활동유형이 고정화되기 위해서는 고정화 서술의 도움이 필요하다.

- (10) a. 他在吃飯.
그는 밥을 먹고 있다.
b. 他吃了飯了.
그는 밥을 먹었다.
c. 他吃了兩小時的飯.
그는 두 시간 동안 밥을 먹었다.

(10a)에서 밥을 먹는 활동은 비록 그 자체로는 끝점을 가지지 않지만, ‘在’를

통해 관찰시점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사건으로 인식된다. (10b)에서는 두 개의 '了'를 통해 관찰시점에 대해 상대적 선시인 시간에 밥을 먹는 활동이 발생하였고, 그 활동이 현재와 관련성을 맺고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또한 (10c)의 경우 밥을 먹는 활동이 '兩小時'라는 경계 지어진 양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순간유형, 완수유형, 성취유형의 경우 동사배열(verb constellation)이 가리키는 상황 자체가 끝점을 가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사건을 지시하기 용이하다. Tenny(1994:4-5)에 따르면 내재적 끝점은 제한성(delimitedness)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제한성이란 상적 자질로, 시간에 있어서 구분되는, 명확한, 내재적 끝점을 가지는 사건의 자질을 말한다. Vendler의 네 가지 부류 중 완수유형과 성취유형은 제한된 것이고, 상태유형과 활동유형은 제한되지 않은 것이다. 제한성은 한계성(telicity, 혹은 종결성으로 칭하기도 함)과 가깝다. 제한된 것과 제한되지 않은 것의 구분은 Bach나 Mourelatos의 동사 분류에서 중심적 문제인데, 이들은 제한 비상태(delimiting non-statives)를 '사건(event)'이라 부르고, 비제한 비상태(non-delimiting non-statives)를 '과정(process)'이라 불렀다(Tenny 1994:4-5에서 인용).

최규발(2009)에서는 근대 중국어 자료인 《朱子語類》에서 '了'와 동사, 목적어의 상대적 어순 유형을 고찰한 결과, 동사의 타동성(transitivity)이나 한계성(telicity)이 높을수록 동사와 '了'가 하나의 단위로 묶여 '동사+了+목적어'의 어순을 구성함을 알 수 있었다고 하였다. '了'는 그 자체가 원래 완료와 완성을 나타내는 어휘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문법화되는 과정에서도 완료와 완성의 의미를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동사와 먼저 결합하고 있는 것은 이들 동사가 '사건'이라는 단위를 이미 지시하여, 사건을 외부에서 관찰하는 또 다른 '了'의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즉 동사의 내재적 끝점은 그 동사가 지시하는 상황이 '사건화'되기에 용이한 잠재적 가능성을 제공한다.

4.2 논항성분과 사건의 고정화

상황상에 대한 연구는 주로 동사가 나타내는 상황이 가지는 시간적 특징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동사의 어휘 의미가 갖는 상적 의미에 대한 분석은 대부분이 Vendler(1967)의 연구를 기초로 하고 있다. 하지만 Vendler의 분류에서는 동사와 동사구 층위를 명확하게 나누지 않았으며, 하나의 동사가 동시에 두 개의 부류에 속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 (11) a. Mary walked.
Mary가 걸었다.
b. Mary walked to the store.
Mary는 가게까지 걸었다.

(Pustejovsky 1991:49)

예를 들어 위의 예문에서 (11a)는 활동유형에 속한다. (11a)의 기본문장에 전치사구 'to the store'가 부가되면 완수유형이 된다. 이처럼 동일한 술어동사를 지닌 문장이 전치사구로 이루어진 부사어의 수식을 받으면서 다른 상황유형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부사구 수식의 관점에서는 몇몇 부사구의 시간적, 의미적 자질이 각 층위에서 더해져서 합성적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상황유형은 논항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 (12) a. Mary drank a beer.
Mary가 맥주를 하나 마셨다.
b. Mary drank beer.
Mary가 맥주를 마셨다.

(Pustejovsky 1991:49)

(12a)는 'beer'의 양적인 경계를 통해 맥주를 마시는 사건 전체도 경계 지어져서 완수유형에 속한다. (12b)의 경우 원형 복수 목적어가 출현함으로써 사

건의 종결점도 불분명해지는 비경계 과정(unbounded process)³⁾으로 파악된다.

이복희(2006:170)에서는 상적 유형 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는데, 이 중 (I-III)은 활동과 완수 사이의 전환해 해당되는 경우이다.

- I. 동사구의 상 속성이 직접목적어의 내부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 II. 상 속성이 술어구의 성분, 즉 수식어/하위범주화 되지 않은 보충어의 존재 유무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 III. 맥락요인에 의해 재분석되는 경우.
- IV. 복수주어가 오는 경우.
- V. 기타 경우

즉 활동유형은 직접목적어(내부논항)나 술어구의 수식어, 보충어, 맥락에 의해 완수유형으로 전환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내부논항, 수식어, 보충어, 맥락은 활동을 경계 짓는 고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먼저 내부논항의 고정화 효과를 살펴보자. Tenny(1994)는 내부논항이 사건을 재어 나누는(measuring out)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그녀에 따르면 내부논항으로 사건을 재어 나누기하는 것은 두 가지 동사 부류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하나는 증분대상 동사(incremental verbs)이며, 다른 하나는 상태변화 동사(change-of-state verb)이다. 그밖에도 경로-목적어 동사(route/path-object verbs, 혹은 이동동사)는 내부논항이 사건 진행의 경로나 거리를 나타내준다. 먼저 증분대상 동사의 예를 보면, 소비동사(verbs of creation), 창조동사(verbs of consumption)는 증분대상을 가질 수 있어서 'eat an apple'에서 'an apple'은 먹는 사건에 대한 측정 수단을 제공하여 사과를 얼마나 먹었는지, 남은 사과는 얼마인지를 통해 사과를 먹는 사건을 측정할 수 있으며, 'build a house'에서도 'a house'는 집을 짓는 사건의 완성도를 측

3) (12b)는 Vendler(1967)의 분류법에서는 활동유형에 속한다. Pustejovsky(1991)는 동사 단독으로 활동을 나타내는 것만을 활동유형에 귀속시키고, 부사어나 내부논항이 의미 해석에 참여하여 비경계, 지속 활동을 나타내는 경우를 비경계 과정(unbounded process)이라고 칭하였다.

정하는 수단을 제공해준다. 두 번째로 'break'와 같은 상태변화 동사는 그 내부 논향이 겪은 상태변화를 통해 사건의 완성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경로-목적어 동사의 예로는 'walk to school'이나 'play a sonata'를 들 수 있는데, '학교로 가는 길'이라는 공간이나 '한 곡의 소나타'가 연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사건을 제어 나누는 데 쓰일 수 있다.

조경환(2009)에서는 중국어에서 직접목적어의 양적 특성과 상황유형이 갖는 한계성(telicity)에 대해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완수동사는 그 직접목적어의 수량성분이나 지시성에 의해 제한되는데(delimited), 그는 중국어의 완수동사가 나타내는 한계상황의 제한성(delimitedness)⁴⁾이 견고하지 않아서 다음과 같은 문장이 성립 가능하다고 하였다.

(13) 他昨天寫了一封信, 可是沒寫完. (조경환 2009:82)

한계상황(telic situation)에 쓰이는 한계목적어도 한정어와 수사가 쓰인 목적어 간에 제한성의 차이가 존재하여 (13)과 같은 예문의 수사를 '三'으로 바꾸면 문장은 성립하지 않고, 또 한정적 목적어를 사용하는 경우 한계 사건의 제한성이 상대적으로 약해진다고 하였다.

그는 또한 동사가 증분대상 목적어를 가지는 경우에 있어서도 체거류 동사와 창조류 동사 간의 증분성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그 원인은 바로 중국어의 체거류 동사 뒤에는 단계보어⁵⁾ '了'가 오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14) a. *他們把房子造了。
 b. 他們把飯吃了。
 그들은 (그) 밥을 다 먹었다.

(조경환 2009:86)

이처럼 동사의 직접목적어(내부논항)가 갖는 지시성, 수량 특징은 사건을

4) 조경환(2009)에서는 'delimitedness'를 '경계성'으로 번역하였다.

5) 조경환(2009)에서는 '동상보어'로 칭하였다.

제한(delimit)함으로써 사건을 고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4.3 보어 및 부가어와 사건의 고정화

활동의 지속시간을 나타내는 시량사구나 동작의 횟수를 나타내는 동량사구, 동작의 결과상태를 나타내어주는 각종 보어도 사건의 고정화 서술이다. 시량사구, 동량사구, 각종 보어는 이미 발생한 사건의 양적인 특성과 결과를 명세화한다. 시량사구와 동량사구는 동작이나 결과상태의 지속시간 및 횟수, 빈도 등을 나타내며, 이들은 사건을 수식하는 부가어로서, 사건논항을 가지는 사건문에서만 인허된다(Kratzer 1995).

중국어의 각종 보어성분들 중 일부도 사건의 고정화에 참여하는데, 가능보어의 경우에는 양태성과 관련되며 상태문을 구성하므로 고정화 요소에서 제외된다. 그밖의 보어들은 모두 사건의 진행 과정과 관련하여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데, 방향보어는 공간적인 경로와 끝점을 알려주며, 결과보어는 결과 상태, 단계보어(phase complement)는 사건 내부의 과정구조 중 일부 단계에 초점을 두어 윤곽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 (15) 回來時等班車又等了一個小時，到記者村已經晚上近12點。

돌아올 때 차 시간을 한 시간이나 기다려서, 기자촌에 도착하니 이미 저녁 12시가 거의 다 되었다.

(CCL 코퍼스)

- (16) 分別在2002年11月、2003年2月和2003年8月舉行了三次會議，探討合作的具體事宜。

각각 2002년 11월, 2003년 2월과 2003년 8월에 세 차례 회의를 열어서 구체적 협력 사항을 논의하였다.

(CCL 코퍼스)

- (17) 說完，我啪地一聲掛上了電話。

말을 다 하고, 나는 퍽 하고 전화를 끊었다.

(CCL 코퍼스)

木村英樹(2008:276)는 비경계적인 동작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의 완성을 나타내고자 할 때 수량사와 결과보어가 동작동사에 유표적 경계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는데, 비록 그의 지적처럼 반드시 ‘완성’을 나타낼 때에만 이들 성분을 부가하는 것은 아니지만(예를 들어 ‘起來’는 시작을 나타냄), 수량사나 결과보어성분이 비사건을 사건으로 고정화시키는 것은 분명하다.

4.4 상적 관점과 사건의 고정화

상적 관점은 문장을 고정화하는 가장 유용한 문법적 수단이다. 특히 내재적 끝점이 없는 상태유형과 활동유형을 사건으로 고정화하는데 있어서 관점상 표지는 필수적 요소이다.

- (18) a. 《駱駝祥子》我也看了。(CCL 코퍼스)
 《駱駝祥子》는 나도 보았다.
 b. 《駱駝祥子》我也看。
 《駱駝祥子》는 나도 본다.

‘了’의 유무에 따라 (18a)와 (18b)는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진다. 비단 ‘了’가 나타내는 관점상적 의미에서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18a)는 사건으로 이해되는 반면 (18b)는 비사건으로 이해된다.

- (19) a. 用一支遙控器、一臺液晶屏幕, 就可打遊戲、講電話、看影片、聽音樂。
 리모컨 하나와 LCD 모니터 한 대만 있으면, 오락을 하고, 전화를 하고,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들을 수 있다.
 b. 當家裡的其他成員回家時, 就看見母親坐在藤椅上守著留聲機在聽音樂。
 집안의 다른 식구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등나무 의자에 앉아서 축음기를 끼고서 음악을 듣고 있는 것을 보았다.

(CCL 코퍼스)

진행상 표지도 역시 이러한 역할을 하는데, (19a)와 같이 상 표지 없는 ‘打遊戲’, ‘講電話’, ‘看影片’, ‘聽音樂’와 같은 동사구는 모두 비사건을 나타내며, 진행상 표지를 가진 (19b)의 ‘聽音樂’는 ‘在’가 음악을 듣는 사건이 참조시간에 진행 중임을 표시함으로써 화자와 청자에게 사건으로 인식될 수 있다.

(20) a. 這朵花很紅。

이 꽃은 매우 붉다.

b. 當一位盲童叫她“媽媽”時，年齡只有22歲的她臉都紅了。

한 맹인 아이가 그녀를 ‘엄마’라고 불렀을 때, 겨우 스무 두 살이 된 그녀의 얼굴이 다 빨개졌다.

c. 我紅著臉，不敢回答一句話。

나는 얼굴을 붉히고서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

(CCL 코퍼스)

(20a)의 ‘紅’은 상태형용사로 일반적으로는 개체의 속성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그러나 (20b), (20c)에서와 같이 변화로 인해 그러한 속성이 나타났음, 즉 변화사건을 나타낼 때에는 반드시 문법적 수단이 필요하다. ‘了’가 부가된 경우 그러한 변화 자체를 나타낼 수 있고, ‘著’가 부가된 경우 변화 사건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적 상태의 지속을 나타낼 수 있다.

이처럼 관점상 표지는 고정화 서술로써 사용된다. 관점상 표지가 고정화 서술이 될 수 있는 것은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느냐 일부분만 보여주느냐의 선택이 이미 그 상황이 시간 속에서 경계를 가짐을 함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상 합성에서 언급되는 여러 가지 요소를 사건의 고정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문장이 시공간 속에서 개별자로서의 구체적 사건을 지시하

기 위해서는 고정화 요소가 필요하며, 문장의 고정화에는 동사의 한계성 및 논항 성분의 지시성, 수량성분, 사건 수식 부사구, 각종 보어 성분, 관점상 표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고정화 요소는 문장의 상적 자질을 결정짓는 상 합성(aspectual composition)에도 관여하고 있어서 상 범주도 문장이 나타내는 명제가 사건으로 고정화되기 위한 고정화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러 가지 고정화 서술을 통해 고정화 된 사건문은 사건변항(event variable)을 가지는데, 이러한 분석은 사건문과 비사건문의 양화 현상 및 부정 문제를 설명해주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Lee & Pan 2001, Lin 2003, 陳利·潘海華 2008).

< 參考文獻 >

- 김영정(1999), 《언어·논리·존재-언어철학 논리철학 입문》, 서울: 철학과 현실사.
- 김재권(1994), 《수반과 심리철학》, 서울: 철학과 현실사.
- 이복희(2006), <동사의 상 특성과 변환>, 《언어과학연구》 제39집, 163-186.
- 조경환(2009), <중국어의 종결과 결과“他寫了一封信”을 중심으로>, 《중국어문논총》 제41집.
- 최규발(2009), <《朱子語類》中“動+賓+了”“動+了+賓”句型記錄者の籍貫分析與這兩種句型的變化>, 《중국어문논총》 제43집, 115-132.
- 최규발·정지수(2006), <현대 중국어 상(相) 표지의 부정>, 《중국인문과학》 제34집.
- 陳利·潘海華(2008), <現代漢語“不”和“沒”的體貌選擇>, 《語法研究和探索14》, 北京: 商務印書館.
- 木村英樹(2008), <認知語言學的接地理論與漢語口語體態研究>, 《當代語言學理論和漢語研究》, 北京: 商務印書館.
- 沈家煊(1995), <“有界”與“無界”>, 《中國語文》 1995年 第5期, 367-380.
- _____(1999), 《不對稱和標記論》, 南昌: 江西教育出版社.
- 石毓智(1992/2001), 《肯定和否定的對稱與不對稱》, 北京: 北京語言文化大學出版社.
- _____(2000), 《語法的認知語義基礎》, 南昌: 江西教育出版社.
- 石毓智·李訥(2000), <十五世紀前後的句法變化與現代漢語否定標記系統的形成本——否

定標語「沒(有)」產生的句法背景及其語法化過程>, 《語言研究》 2000年第2期, 39-62.

- Chierchia(1995). Individual-level predicates as inherent generics, in Carlson & Pelletier(eds.). *The Generic Book*,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76-223.
- Dirven R. & Verspoor, M.(1998). *Cognitive exploration of language and linguistics*,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이기동 외 역(1999), 《언어와 언어학: 인지적 탐색》, 서울: 한국문화사).
- Ernst, Thomas(1995). Negation in Mandarin Chinese,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s Theory* 13, 665-707.
- Hsieh, Miao-Ling(2001). *Form and Meaning: Negation and Question in Chines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Kratzer(1995). Stage-level and individual-level predicates, in Carlson & Pelletier(eds.). *The Generic Book*, Chicago and London: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25-175.
- Langacker, Ronald W.(1987/1991).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Vol. I, II,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김종도 역(1999), 《인지문법의 토대》, 서울: 박이정).
- _____ (1999). *Grammar and Conceptualization*, Berlin: Mouton de Gruyter(김종도·나익주 역(2001), 《문법과 개념화》, 서울: 박이정).
- Lee & Pan(2001). The Chinese negation marker bu and its association with focus, *Linguistics* 39, 703-731.
- Li, Mei(2007). *Negation in Chinese*, 上海: 上海外語教育出版社.
- Lin, Jo-Wang(2003). Aspectual selection and negation in Mandarin Chinese, *Linguistics* 41:3, 425-459.
- Moens & Steedman(2005). Temporal Ontology and Temporal Reference, in Mani, Pustejovsky & Gaizauskas,(eds.). *The language of tim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oens, Mark(1987). *Tense, Aspect and Temporal Reference*.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Edinburgh.
- Pustejovsky, James(1991). The Syntax of Event Structure, *Cognition* 41(1991):47-81.

- Smith(1991). *The Parameter of Aspect*(1st edition), Dordrecht: Kluwer Academic.
- _____(1997). *The Parameter of Aspect*(2nd edition), Dordrecht: Kluwer Academic.
- Tenny, Carol L.(1994). *Aspectual Roles and The Syntax-Semantics Interface*, Dordrecht, Boston, Lond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 Vendler, Zeno(1967). *Linguistics and Philosoph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Xiao, Richard & McEnery, Tony(2004a). A corpus-based two-level model of situation aspect, *Journal of Linguistics* 40, 325-363.
- _____(2004b). *Aspect in Mandarin Chinese*, Amsterdam,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Abstract >

This paper analyzed the aspectual composition elements from the viewpoint of grounding. Grounding is the process of instantiation whereby linguistic expressions are linked to the spatiotemporal entities. A sentence can denote an Event as a particular in the time and space by the grounding process. Chinese is an aspect prominent language, so viewpoint aspect particles(-le, -zhe, -guo, zai-) can be viewed as grounding predications. In addition, situation aspect elements(e.g. internal arguments, situation type of verbs, event modifying adverb phrases, verbal complements ect.) also function as grounding elements.

Keyword: aspect, grounding, grounding predication, grounding elements, aspectual composition, event, particular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0. 3. 31	2010. 4. 30	2010. 5. 4	2010. 5. 7	2010. 5. 31